

“더 믿음 주는 투구로 ‘V12’ 위해 최선 다하겠다”



KIA 타이거즈 좌완 최지민이 지난 3일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서 볼펜 피칭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호주 캔버라=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KIA 타이거즈 좌완 최지민이 '약속의 땅'에서 우승 순간을 꿈꾼다.

최지민에게 프로에서 두 번째 시즌이었던 2023년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좌완 기대주'로 시즌을 열었던 최지민은 '국가대표 필승조'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서 좋은 피칭을 선보였던 그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의 대회 4연패에 기여했다.

최지민의 놀라운 질주 시작점은 호주에 있다. 최지민은 아쉬운 프로 첫해를 보낸 뒤 질풍 코리아 유니폼을 입고 호주리그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곳에서 다양한 타자들과 상황에서 실전을 소화하면서 최지민은 야구에 눈을 떴다.

그리고 눈부신 2023시즌을 보낸 뒤 호주에서 다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최지민은 "한번 왔던 곳이라서 좋다. 날씨 좋은 건 알고 있었으니까 뭔가 더 공을 잘 던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왔다"며 "호주는 내 인생에서 제일 값진 경험을 했던 곳이다. 정말 즐겁게 공을 던지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2022시즌이 끝난 뒤 호주리그에서 뛰었던 최지민은 시즌에도 팀은 물론 국가대표 일정까지 소화하느라 바쁘게 달렸다. 그래서 지난 겨울 최지민은 휴식을 취하며 재정비 시간을 보냈다.

최지민은 "첫 비시즌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이 물어봤다. APBC 끝나고 푹 쉬었다. 아무 생각 안하고 쉬다가 12월 중순부터 몸 만들고 캠프에 왔다"

새 시즌 각오 다지는 좌완 최지민

국가대표·필승조로 바꿨던 2023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기본' 충실

부상없이 시즌 완주하는 게 목표

챔피언십에서 가을 야구 하고 싶어

고 설명했다.

팀 내 입지는 달라졌지만 마음은 지난 캠프와 다를 게 없다. 확실한 선수로 자리하기 위해 '성장'을 목표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최지민은 "작년에 잘했다고 올해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 매년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투수가 되는 걸 목표로 하겠다"며 "지난해 승계 주자 실점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필승조 맡아서 했던 것이라서 경험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그런 상황에 올라간다면 더 잘 막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야구, 경험을 할수록 부담감도 늘었다. 하지만 필승조로 팀의 승리를 책임진다는 희열이 있기 때문에 최지민은 더 부지런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최지민은 "처음에는 필승조라는 게 부담은 안 됐었다. 그런데 중요한 상황이 나가다 보니까 부담되는 상황도 있었다. 그래도 그런 부담을 떨쳐내야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없애는 게 첫 번째이다"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막는 자체가 너무 좋다. 일단 그런 상황이 나가는 것 자체가 감독님, 코치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것이다. 그 믿

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부터 충실할 생각이다.

최지민은 "1년 동안 안 아프고 하려면 보강도 많이 해야 되고, 체력적으로 많이 길러야 한다. 그래야 한 시즌 부상 없이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러닝도 많이 뛰고 하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국가대표로의 경험은 최지민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동력이다.

최지민은 "대표팀 진짜 꿈만 꾸었는데 나가게 되니까 되게 신기했다. 한편으로는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고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올해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다"며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태극기가 있는 게 다르다. 대표팀에서 첫 단추를 잘 꿰니까 더 좋았던 것 같다. 대표팀은 항상 나가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기대하고, 뽑히면 가서 잘 하겠다"고 말했다.

팀 안팎으로 활약을 하면서 프로 3년 차에 역대 연봉자 대열에도 합류했지만, 지난 시즌 전한 아쉬움 하나는 있다. 바로 '가을잔치'를 이루지 못했다

최지민은 "첫해는 잘 몰랐는데 지난해 팀 성적이 안 나니까 아쉬웠다. 또 KT (박) 영현이랑 친구들이 포스트 시즌에 던지는 것 보니까 기대가 됐다.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가을 야구하면 더 많은 관중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기대된다. 챔피언십에서도 가을 야구를 경험하고 싶다"며 "마운드에 비슷한 나이 또래, 형들도 많아서 의지 되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 우리팀 타순 보면 빈틈 없이 좋기도 하다. 각자 자기 역할 하면 좋은 성적 따를 것이다. 우승 너무 해보고 싶다.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wool@kwangju.co.kr

클린스만호, 모래바람 잠재워야 우승

아시아컵 4강 대진 완성

한국, 요르단과 7일 자정 격돌

디펜딩 챔프 카타르, 이란 상대



'중요한 날'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아시아 맹주' 자리를 노리는 한국 축구가 중동 세 팀과 함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컵 정상 도전을 이어간다.

한국시간으로 2~4일 열린 2023 AFC 아시아컵 결승전 결과 한국, 요르단, 카타르가 살아남으며 4강 대진이 완성됐다.

가장 먼저 8강전을 치른 요르단이 '중동아시아 돌풍 팀'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1-0 신승을 거둔 가운데 한국이 '우승 후보' 호주와 120분 연장 혈투 끝에 손흥민(토트넘)의 기막힌 프리킥 역전 결승골로 2-1로 이기고 4강 티켓을 품었다.

'중동의 맹주' 이란도 유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을 제물로 삼아 2-1 역전승으로 포효한 가운데 '개최국'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카타르가 우즈베키스탄과 연장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힘겹게 이겨 4강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 4강에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통틀어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국과 요르단-이란-카타르 '중동 3개 팀'의 자존심 대결이 압축됐다.

4강 대진은 한국-요르단(7일 0시), 이란-카타르(8일 0시)로 짜였다. 한국은 준결승을 통과하면 또다시 중동팀과 결승을 벌여야 해 '모래바람'을 뿜어야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은 준결승은 물론 결승에 올라도 반드시 꺾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팀들과 만난다. 먼저 준결승에서 상대하는 요르단에는 역대 전적에서 3승 3무로 앞서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요르단과 홈전 끝에 2-2로 비기며 팬들이 실망하게 했다.

전반 9분 터진 손흥민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낙승이 기대됐으나 전반 37분 박용우(알아인)의 자책골로 동점을 내주더니 후반 추가시간 역전골까지



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컵 8강전 한국과 호주의 경기. 손흥민이 연장전에서 프리킥으로 역전골을 성공시킨 뒤 기뻐하고 있다. 왼쪽에는 기뻐하는 클린스만 감독. /연합뉴스

허용하며 끌려갔다.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시간 황인범(즈베즈다)의 슈팅이 상대 선수 발에 굴절돼 자책골이 되며 '진담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 때문에 태극전사들은 4강에서 다시 만나는 요르단을 반드시 꺾고 결승에 오르겠다는 각오뿐이다.

한국과 요르단은 모두 준결승에 경고 누적으로 핵심 선수가 빠진다.

클린스만호의 '철기둥' 김민재(뮌헨)는 8강전에서 옐로카드를 하나 추가하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받은 옐로카드에 이어 '경고 누적'으로 4강전 출전이 불발됐다.

김민재의 공백은 정승현과 김영권(이상 울산)이 메울 예정이다. 박진섭(전북)도 대기한다.

요르단에는 이번 대회에서 2골을 넣은 선수가 마흐무드 알마르디, 야잔 알나야마트, 무사 알타마리까지 3명이나 돼 긴장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다만 주전 공백은 요르단이 더 뼈아프다. 주전 공격수인 알리 울완과 스리백 수비의 한축을 담당하는 살렘 알자잘린까지 2명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다.

한국이 요르단을 격파하면 이란-카타르 준결승 승자와 대망의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겨룬다.

카타르는 2019년 아시아컵에서 한국을 8강에서 꺾은 뒤 준결승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대회 사상 첫 우승을 맛본 디펜딩 챔피언이다.

태극전사에게 카타르는 5년 전 8강 탈락의 아쉬움을 갚아줘야 할 대상이다.

이란 역시 한국 축구의 오랜 '라이벌'이다. 역대 전적에서 우리나라가 10승 10무 13패로 밀리는 아시아의 강적이다.

한국은 2022년 3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2-0으로 승리하기 전까지 이란에 무려 7경기 연속 무승(3무 4패)에 그쳤을 만큼 어려움을 겪어왔다. /연합뉴스

이정효 광주FC 감독, 드론 띄운 이유는

선수들 움직임 시각화로 전력 극대화

광주FC 이정효 감독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광주는 지난 1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2024시즌을 위한 위밍업을 했다. 그라운에서 훈련을 하는 시간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

훈련 전 선수들은 영상 미팅을 통해 머리로 연습을 하고 몸으로 전술을 효과적으로 읽었다. 미팅 시간은 30분가량이지만 선수들의 기량을 입체적으로 키우는 중요한 일과였다.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 이정효 감독은 저녁도 거르면서 쉴 틈 없이 달렸다.

이정효 감독은 각 분야 코치, 스태프한테 관련 영상을 받은 뒤 직접 편집까지 하면서 미팅 시간을 준비한다. 이정효 감독의 '영상 지도' 이유는 하나,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똑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정효 감독은 "선수 때 단순하게 '볼이 여기 있으면 움직여라', '상대 수비수가 나오면 이렇게 침투해라' 이런 패턴에 대한 설명만 들었다. 개인 능력이 안 되면 경기 못 나가는 느낌이었다"며 "내가 배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수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정효표' 영상 미팅은 선수들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라운드라는 큰 판을 보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정효 감독은 "팀 전체를 봐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동료가 어디 만큼 있고 어디쯤 왔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또 볼터치를

앞, 뒤, 중간, 횡 어디를 보고 어느나에 따라서 동료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 생각하면서 축구 전체판을 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큰 판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정효 감독은 훈련장에 드론까지 띄우고 있다.

감독들은 종종 경기장 높은 곳에서 선수들의 훈련 장면을 지켜본다. 그때 내려다보는 전체적인 움직임을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도 보고, 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드론이다.

이정효 감독은 "사비로 드론을 샀다(웃음). 한 대였는데 더 샀다. 위에서 찍지 않으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미팅할 때 쓰는 영상은 2, 3층에서 보는 시각을 담는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선수들은 자기 위치에 따라 동료가 있는 자리에 대해 빨리 판단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영상이라는 자신만의 지도 스타일을 구축한 이정효 감독은 그 공을 코칭스태프에게 돌린다.

이정효 감독은 "코치, 스태프, 분석팀에서 도와주니까 하고 있다. 그분들 없으면 못 한다.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다. 새로 오신 분도 있고 4명이 같이 분석한다. 코치들이 고생한다"며 "다행히 올해 좋은 분들이 총원되기도 했고, 구단에서도 분석팀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지원해 주셨다. 절대 나 혼자 못한다. 내가 일을 많이 만드는 데 그만큼 우리 스태프도 힘들다. 모두가 헌신하고 팀을 위해 하고 있다"고

광주의 집주비결 '팀워크'를 이야기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전력분석원이 선수들의 훈련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있다.